

05

「공공회계 현안과 발전방향」 심포지엄 결과

1 개요

1. 주제 : 공공회계 현안과 발전 방향
2. 일시 : '15.12.10.(목) 14:00~17:30
3.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
4. 주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회계학회·한국정부회계학회

2 주제발표 및 토론

가.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연구

- 발표자 : 이남주(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
- 토론자 : 김경호(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이경숙(기획재정부 사무관)

나.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 발표자 : 윤재원(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토론자 : 이정은(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조성훈(머니투데이 경제부 차장), 김상노(한국공인회계사회 정책기획팀장)

다. 국가재무정보의 품질평가를 통한 투명성 평가체계 구축

- 발표자 : 김봉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토론자 : 이경섭(前 감사원 국장), 박성환(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허웅(이정회계법인 이사)

라.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현안 및 재무정보 품질 제고방안

- 발표자 : 전규안(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 토론자 : 박성동(통계교육원 원장), 문창오(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재무분석팀장), 이정택 (한국전력 재무처 차장)



〈「공공회계 현안과 발전방향」 심포지엄 (12.1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2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첫 번째 주제인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연구」는 이남주 전문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추진과정과 회계기준 간 차이 분석을 통하여 기준 차이의 정도와 방향성을 검토하였고,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준 및 제정기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의 형태에 대한 제언과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상생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호 교수(홍익대학교),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이경숙 사무관(기획재정부)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1〉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연구」

- [김경호]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을 왜 일치시켜야 하는지 목적을 우선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기재부와 행자부가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각 지원기구 간 협력·공동연구 등이 필요함. 국가와 지자체 회계의 통합 목적으로 ① 국가와 지자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② 비용 절감을 위한 시스템 통합 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향후 감사원이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통합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화와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현재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은 상당부분 일치된 상태이며, 통합추진위원회나 시스템 통합 없이 사소한 기준 차이를 일치 시키거나 단순하게 용어를 통일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전중열] 현재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한 이원화를 인정하더라도 향후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도와주어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음
- [이경숙] 재정통계 산출 시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기준 등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교부금과 같은 비교환거래 재원이전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단일화된 회계 처리지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와 지자체 회계기준을 일원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므로, 지자체 회계기준은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국가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지금부터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이남주] 본 연구는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정부회계분야의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양질의 정부회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떠한 체계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연구이며, 상생 발전을 위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함



〈「공공회계 현안과 발전방향」 심포지엄_제1주제 (12.1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두 번째 주제인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표한 윤재원 교수(홍익대학교)는 국민의 정보 욕구와 지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해례본을 제안하였고, 주요 포털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접근 경로를 개선하고 대국민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능동적 전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회계 해례의 전략적 기본방향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① 알기쉬운 결산보고, ② 알기쉬운 국가재무제표 Q&A, ③국가재무제표 해설서 초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은 의정종합지원센터장(국회사무처), 조성훈 경제부 차장(머니투데이), 김상노 정책기획팀장(한국공인회계사회)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2〉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 [이정은] 국가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저변이 넓지 않아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며, 프로그램 단위의 원가정보는 유용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함
- [조성훈]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신을 따라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이 필요함.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계정과목을 클릭하면 설명이 나오는 tree 구조를 사용하고, 그래프를 통해 시계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충분한 설명과 시각화가 필요함. 또한, 사전적 나열이 아니라 사례 등을 제시하여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서술하며, 가치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편향되지 아니하도록 작성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함
- [김상노] 정부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재무제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함.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집약적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순자산,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순자산 정보 등을 활용하지 않고 개별항목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현재 재정운영표가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며, 세입세출결산서와 재정운영표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어려움
- [윤재원] 현재 연구는 외부이용자인 국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나, 국가 재무제표 자체의 유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반영하도록 하겠음

세 번째 주제는 「국가재무정보의 품질평가를 통한 투명성 평가체계 구축」으로 김봉환 교수(서울대학교)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성 지표들을 제시하고 각 지표별 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평가항목별 지표로 수익·비용 배분의 적정성은 비배분 수익·비용 분석 지표, 회계정보의 구체성은 프로그램 당 원가 및 프로그램 수 분석지표, 회계정보의 정확성은 전기 오류수정 분석지표, 마지막으로 회계정보의 예측가능성은 계정과목 변동성 분석지표가 제시되었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 이어서 이경섭 위원(전 감사원 국장), 박성환 교수(한밭대), 허웅 회계사(이정회계법인)가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3〉 「국가재무정보의 품질평가를 통한 투명성 평가체계 구축」

- [이경섭] 일반회계의 경우 프로그램예산체계가 아닌 장·관·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입대체경비수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은 프로그램별로 대응이 어려워 프로그램수익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비배분수익/비용 분석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또한, 프로그램원가 및 프로그램 수 분석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원가는 의사결정 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원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부처별로 관리운영비가 없는 경우는 오류에 해당하므로 분석 시 관리운영비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박성환] 제시한 4가지 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은 존재하지만 종합지표화하여 공시할 경우 중앙관서가 재무제표를 고민하여 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됨. 비배분수익/비용 분석과 관련하여 비배분비용의 감소가 품질 개선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며, 최근 전기오류수정 발생 부처가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전기오류수정을 분석 항목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임. 덧붙이면 ① 결산담당 인력수, 전문성, 투입시간, 근로기간, ② 주석공시 사항(부문별 정보 등)의 충실성, ③ 프로그램 당 평균인건비 등 정성적인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함
- [허웅] 유사한 부처를 하나로 묶는 등 다변량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면 통계적으로 더 유용한 정보가 나올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분석 시 영국 감사원(NAO) 등에서 사용하는 중요성 기준(총자산 x 0.5%)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계정과목 평균 변동성 분석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 변동성 산출시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김봉환] 인건비 분석은 연구의 목적이 성과평가가 아닌 재무제표 자체의 품질평가이므로 제외할 것이며, 관리운영비, 주석의 충실성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음

네 번째 주제는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현안 및 재무정보 품질 제고방안」으로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가 발표를 맡았으며,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공공기관 재무정보 통제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 감소 노력, 그 밖의 기타제정에 대한 구분표시 및 외부감사 시간 증가 등이 제시되었으며, 재무정보 통제의 제고 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금지 명문화, 감사인의 선임·해임·지정·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 신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회계감사기준의 명문화, 감리제도의 명문화 등이 제시되었다. 네 번째 주제 발표에 이어서 문창오 재무분석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이정택 재무처 차장(한

국전력)이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박성동 원장(통계교육원)은 서면의견으로 토론을 대신하였다.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4〉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현안 및 재무정보 품질 제고방안」

- **[문창오]** 알리오는 민간데이터에 비해 인건비, 인력, 급여 정보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재무제표 정보는 5개년치만 공시하는 등 한계가 존재하며 데이터의 접근성이 낮은 편이므로 재무정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알리오의 경우 초기에는 재무정보의 수치오류, 잘못된 결산서 첨부 등 기본적인 오류가 자주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강력한 공시점검으로 자료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다만, 재무정보 재작성시 기관별로 재작성하는 연도에(2개년, 3개년, 5개년 등)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재무정보 품질 평가를 수행할 때 회계변경 등으로 인한 효과는 제외하고 회계오류로 인한 효과만 분석을 하면 좀 더 유의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됨
- **[이정택]** 상장 공공기관은 외감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회계기준 적용 시 상장 공공기관과 이외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간 구분이 필요하며, 결산자료 개선을 위해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늘리는 방향도 좋지만 회사의 결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또한, 중요성 금액을 초과하는 기타계정의 경우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사유가 존재함에 따라 각 기관별로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지막으로 '중간지배회사에 대한 연결 면제 규정'은 상위지배회사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최상위 지배기관인 정부는 공공기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 면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함
- **[박성동]** 공공기관 유형별 회계의 개선사항 및 공공기관회계를 활용한 재무분석 기법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가재정에서 주요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이 대부분이므로 원가정보 산출을 중요시하는 국가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공단회계와 기금회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합리적인 구분 기준 마련이 필요함. 또한, 기타공공기관은 거의 대부분 자체 회계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기관별로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공통 회계처리기준 정립이 필요함. 추가적으로 알리오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손익수정에 대한 내용분석이 필요함. 단순한 추정오류인 경우 수용가능하나 전기손익수정사항이 불성실 증과실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경영평가의 계량평가에 소급 반영하고 성과급을 수정할 필요가 존재함
- **[전규안]** 회계변경 등으로 인한 효과는 제외하고 회계오류로 인한 효과만 별도로 분석을 하면 좀 더 유의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반영할 예정임. 또한, 이외의 의견들도 검토를 통해 보고서 반영할 계획임